세 제시문은 창조와 파괴로 세계관을 갖는지 여부로 제시문(가),(나)와 제시문 (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는 세계의 회귀성의 여부로 비교할 수 있다. 제시문(가)는 세계가 고정된 크기의 힘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공간에 자리잡고 있지만 여러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형태는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변화하는 모순이 존재하며 원환의 고리 위에서 처음의 단순함으로 회귀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자기창조와 파괴가 존재한다.
반면 제시문(나)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새로운 상품, 생산수단 등이 창조되고 과거의 것을 파괴하는 산업적 돌연변이 과정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창조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며 다시 회귀하지는 않는다. 회귀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역행되는 흐름이고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 철강산업은 용광로를 통해 철강을 생산하는데, 과거로 회귀하여 화덕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추진력이 되지 못한다.
제시문(다)는 창조와 파괴 없이 역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역사 초기에 존재하던 위계적 신분간 복잡한 관계망은 근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계급, 억압, 투쟁은 유지되어왔고 창조와 파괴의 과정이 아닌 과거를 대체할 것이 등장했을 뿐이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부르주아 계급이 금전적 수수관계라는 억압조건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고 교환가치와 자유무역으로 인간의 열정과 기타 종류의 자유를 박탈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단결하여 혁명으로 지배계급이 된 후 자신의 지배계급이라는 지위를 지양, 파괴한다면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제가 이걸 쓰면서 의문이 된 것이. 제시문(나)에서 회귀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추진력이 되지 못하기에 회귀를 부정한다고 쓴거 하고 제시문(다)에서 계급,억압,투쟁이 있어왔던 것은 계속 있어왔다는 것을 바탕으로 창조와 파괴가 없다고 해야되는지, 고대로마, 중세, 근대에 계급,억압,투쟁이 있었지만 서로 달랐기에 창조와 파괴가 있었다고 해야되는지..전자가 제시문(다)의 요지인거 같기에 전자를 바탕으로 썼습니다만.. 약간 의문이 들더군요. 어떤 사고과정이 잘못되었는지 알고싶군요. 저는 제시문을 근거해서 쓴거 같은데.. 창조와 파괴쓰셔서 첨삭받으신 다른분(소리의 바다님) 답안봤는데 그거랑 많이 달라서 불안하네요. 수고하세요